

# 弔 辭

2017년 2월 18일 오늘, 이곳 우베의 바닷바람은 아직도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하고, 75년의 시간을 그대로 멈추게 하여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희생된 분들은 바다 건너 조선에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이었으며, 열악한 환경에 내몰렸던 일본인 노동자들도 함께 저 바다 밑 갯도에 허리조차 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쇼세이탄광의 비양심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75년의 아픈 상처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살아야 했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국주의 무모한 욕망만 없었더라면, 쇼세이 탄광의 안전에 대한 의식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희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에 세월이 지나도 안타까움 또한 그대로인 듯합니다.

마음에 자리한 양심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에 미혹한 종생들은 종종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는 눈앞의 이익과 편리만 추구하다가 결국 더 큰 희생을 가져오게 한다는 너무도 아픈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양심적 처사를 양심으로 바꾸는 책임있는 당국과 탄광회사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위령재를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는 마지막은 아직도 어두운 해저에 잠들어 계신 영령들을 다시 빛이 있는 이곳으로 모시고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 일환으로 이 위령재를 주최하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행사를 주관하는 “역사에 새기는 모임” 이노우에 공동대표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자님을 비롯해 향기로운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뜻 깊은 오늘의 실천으로 우리의 앞길이 더욱 환하게 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 승